

축제는 끝났다...올 스토브리그 키워드는 '잔류' '포수' '롯데'

# 거품 걷힌 FA 시장...롯데 안방이 변수



프로야구 FA 시장이 31일 KBO의 공시를 통해 활짝 열린다. 최근 몇 년 사이 호황기를 맞았던 FA 시장은 그러나 구단들의 육성 기조 전환과 특급 선수들의 부재로 예년보다 움츠러들 조짐이다. 시장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전준우와 안치홍, 김선빈, 이지영, 김태균, 정우람, 이성열, 오지환(왼쪽부터). 스포츠동아DB

(3년 28억 원)  
**‘역대 최고 대우’ 김태형 감독**  
“앞으로 3년은 분명히 다를 것”



두산 김태형 감독

두산 베어스와 KBO 역대 사령탑 최고대우(3년 총액 28억 원)에 재계약한 김태형 감독이 끝났던 정상 차림으로 30일 잠실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감독은 5년 연속(2015~2019시즌) 한국시리즈(KS)에 진출해 세 차례 우승을 차지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계약 마지막해인 2022시즌까지 꾸준히 강팀의 면모를 유지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김 감독 특유의 자신감이 묻어났다.

“앞으로 3년간은 처음 감독이 됐 때와 분명히 다를 것 같다”고 운을 뗀 김 감독은 “(감독 부임 첫해인) 2015시즌과 비교하면 모든 면에서 시야가 넓어졌다. 야구 이외에도 모든 부분에서 감독이 해야 할 게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물론 성적이 첫 번째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모든 면에서 시야가 넓어졌다는 게 과거와 가장 큰 차이”라고 밝혔다.

김 감독은 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 2016시즌 김현수(LG 트윈스), 2018시즌 민병헌(롯데 자이언츠), 2019시즌 양의지(NC 다이노스)가 차례로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어 팀을 떠났을 때도 흔들림 없이 좋은 성적을 유지한 것이 좋은 예다. “거창한 목표가 좋다”는 말에 더욱 힘이 실린 이유다. “향후 3년간 개인적인 목표는 당연히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다. 모두가 바라는 게 좋은 성적 아니겠냐”고 밝힌 그는 “바로 준비할 수 있는 1.5군급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주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겠다”고 덧붙였다.

잠실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구단들 고액 FA 계약보다 육성 초점 보상선수 부담...외부 영입에 소극적 ‘극심한 포수난’ 롯데 행보 시선집중

KBO는 한국시리즈 종료(26일) 5일째가 되는 31일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획득한 선수를 공시한다.

구단, 선수, 외부전문가 그룹의 공통된 전망은 ‘축제는 끝났다’로 요약된다. 키워드는 ‘잔류’, ‘포수’, ‘롯데의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KBO FA 시장은 2014년부터 대 호황기를 맞았다. 한화 이글스가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한 시기다. 정상급 FA 선수의 시장가치가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그해 최고액은 한화 정근우의 4년

총액 70억 원이었다. 50억 원 이상 계약이 4건이나 나왔다. 2015년에는 80억 원 이상 계약이 3명이었다. 시장은 통제력을 잃어갔다. 2017년 최형우(KIA 타이거즈)가 사상 처음으로 100억 원 시대를 열었고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김현수(LG 트윈스) 등 해외 복귀파 선수들이 초고액 계약을 연이어 맺었다.

FA 시장의 열기가 한풀 꺾인 지난해도 양의지(NC 다이노스)의 125억 원, 최정(SK 와이번스)의 106억 원(6년) 등 천문학적 액수의 큰 계약이 발표됐다.

그러나 올 스토브리그는 최근 고액 FA 계약보다는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각 구단 정책의 변화 그리고 리그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특급 선수가 없다는 특성상 시장 규모가 크게 작아질

전망이다. FA 자격을 획득하는 주요 선수는 전준우(롯데), 안치홍, 김선빈(KIA), 이지영(키움 히어로즈), 김태균, 정우람, 이성열(한화), 오지환(LG 트윈스) 등이다. 박석민(NC)과 우승 팀 두산의 캡틴 오재원, 김강민(SK), 유한준(KT 위즈), 손승락(롯데) 등 베테랑들은 두 번째 FA 자격을 얻는다.

복수의 단장들은 “외부 FA영입 계획은 없다. 2차 드래프트와 트레이드에 집중하고 있다. 20인 보호선수 외 보상선수 출혈을 감당할 만한 FA 선수가 많지 않다”는 공통된 의견을 전하고 있다.

전준우는 투고타저 시대에 매력 있는 카드지만 내년엔 만34세가 된다. 정우람은 여전히 훌륭한 마무리 투수지만

내년 만35세다. 한 팀 단장은 “전준우, 안치홍, 오지환, 그리고 한화의 베테랑 FA, 유한준까지 거의 대부분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 공격적으로 영입 경쟁을 펼칠 팀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SK가 내야 보강에 관심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포수는 분명히 수요가 큰 포지션이다. 이지영과 김태균(NC)이라는 수 준급 포수가 FA가 됐다. 최근 2년간 극심한 포수난을 겪은 롯데가 과연 시장에 뛰어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롯데가 경쟁을 선택하는 순간 FA전체 시장에 여러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롯데가 직접 계약이 아닌 사인&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 FA 등급제 도입 눈앞...무더기 재수생 나오나

내년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 기대감

KBO와 10개 구단은 프리에이전트(FA)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정우람 KBO 총재 역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현 FA 제도는 정상급 선수들의 승자 독식 구조다. 리그 평준화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보호선수 20명 외 1명 보상선수 제도는 베테랑 FA의 이적을 가로막는 가

장 큰 장벽이다.

KBO는 11월 4일 단장들이 참석하는 실행위원회에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프로야구선수협회와도 여러 채널을 통해 교감 중이다. 선수협회 역시 FA 등급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면 올해가 아닌 내년 스토브리그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올해 FA 자격을 획득한 선수들의 관심도 뜨겁다. 현상에서는 무더기

로 FA 재수를 선택하는 선수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키움 히어로즈 포수 이지영은 팀의 포수 전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내년 만34세가 된다. 현재가 아닌 등급제가 도입되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열린 선택지를 받을 수 있다. 한화 이글스 좌완 구원투수 정우람, 왼손 거포 이성열도 마찬가지다. 내년 37세가 되는 롯데 자이언츠 좌완 고효준은 올해 FA 자격을 획득할 예정이지만 현 제도 속에서는 타 팀과 계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30대 중반 베테랑 선수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면 리그 전력평준화 및 전체 시장에서 구단과 선수가 장기적으로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가격 조정자 역할도 가능하다. 메이저리그는 등급제 폐지, 웨리파잉 오퍼 도입과 개선 등 FA 제도를 꾸준히 손질해오고 있다. KBO 리그는 1999년 FA 제도 도입 이후 2011년 보호선수를 18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보상금액을 축소했지만 큰 틀에서 변화는 없었다.

이경호 기자

## 대진메디칼 AS 및 보상판매



대진메디칼대표 김미현



식약처 2등급 개인용 온열의료기 (순은99.9%의 온열봉)

“30일 전액환불제”  
(물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20년동안 그 자리 그 변호 ※환불보증서를 발행합니다.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구형을 신형으로 보상판매 해 드립니다

- 대상 : 1999년 이후 제조된 개인용온열의료기 모든제품
- 원인 : 제조날짜가 10년이상 된 제품은 부품의 단종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으므로 보상교체 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30일 전액환불제란 : 제품을 구입 후 한 달(30일) 동안 충분히 사용해 보시고 불만족 시에는 이유를 물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반품을 받으며, 즉시 전액환불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검색 대진메디칼

서울 중로구 진흥로 432 요진세웨이 9층  
상담문의 ☎1588-1115

## 무료서적

- 기초 성경연구 시리즈  
말씀향기 (총 5권 각 20~50쪽 분량)
- 건강 생활 지침서  
건강새출발 (총 3권 각 40쪽 분량)

성경에 나타난 **미리보는 세계역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성경 예언서 연구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연구 166쪽 컬러판- -요한계시록 연구 1,2권 200쪽 컬러판-  
주문전화 1670-5235 www.vop.or.kr  
우리은행 1005-001-946797 예금주 성경통신학교

## 신용불량자 요금연체자

갤럭시 S10 5G / 아이폰XS MAX 할부개통 가능

휴대폰 현금 동장 쓰실분  
현금 100~390만원 즉시지급

신규, 기기변경, 번호이동 백화점 상품권증정

010-3914-3777 전국 출장 가능 (제주도 가능) (주)참바른통신

## 동네맛집 ● 지사모집

## 도시락시티

안주/식사/간식  
공동구매 ● 개별판매  
즉석음식/포장식품

좋은친구들

1800-3390  
010-4299-3389

판매대행 ● 배달대행